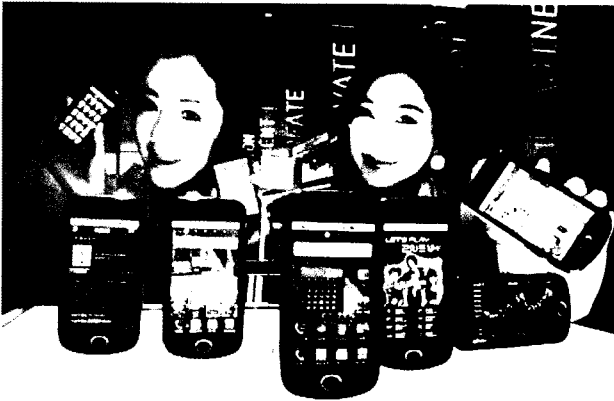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탑재폰 갤럭시 A 출시



옵니아 시리즈 등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플랫폼 2.1'에 다양한 국내 특화 기능을 탑재한 한국형 안드로이드 탑재폰 '갤럭시 A(SHW-M100S)'를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A'란 이름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안드로이드 탑재폰 네임인 갤럭시에 삼성전자 국내 첫 안드로이드(Android) 탑재폰, 삼성 애니콜(Anycall) 등을 상징하는 'A'를 붙였다.

▣ 국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애플리케이션 제공

삼성 안드로이드폰은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운영 중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T스토어 내 숨인숨인 '삼성 앱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A'를 통해 차별화된 스마트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국내 특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출시에 맞춰 삼성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 앱스(Samsung Apps)'에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보문고 e-book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교보문고 App', 프로야구 실시간 문자 중계 서비스 'KBO 프로야구', 국내 인기 웹툰 만화를 볼 수 있는 '웹툰 App', 수도권 버스 정보와 도착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Any bus',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아도 꼭 필요한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N뱅킹 App', 바코드 인식으로 온라인 최저가 정보 확인과 QR코드 통한 다양한 조화가 가능한 '쿠루쿠루 (Qroo Qroo)', ELLE 잡지와 다양한 패션정보를 브랜드별로 볼 수 있는 ELLE 모바일 앤티진 (Atzine),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한 '이보영 영어회화 사전', 해당 app이 설치된 폰들끼리 살짝 접촉만 해주면 전화번호나 사진 교환이 가능한 '범프(Bump)'를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5월까지 100여개 이상의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A'에는 이와함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인 구글 빠른 검색창, Gmail, 지도, 유튜브(youtube), 토크 등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 '아몰레드 플러스' 탑재로 현존 휴대폰 중 최고의 화질 구현

갤럭시 A는 3.7 인치 WVGA '아몰레드 플러스'를 탑재해 현존 휴대폰 중 가장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고, 정전식 터치 방식을 채택해 부드러운 터치감을 제공한다. '아몰레드 플러스(AMOLED PLUS)'란 기존 아몰레드(AMOLED)

대비 반사율을 2배 개선하여 시인성과 선명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한국형 안드로이드 탑재폰답게 영상 통화 이용이 많은 국내 사용자를 위해 안드로이드 탑재폰 최초로 영상 통화 기능을 탑재했으며 안드로이드 탑재폰에 최적화된 햅틱 UI 지원, 지상파 DMB, 파일변환 없이 영화감상이 가능한 디빅스 지원 등 다양한 국내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초고속 CPU, 500만 화소 카메라, 8GB 외장메모리 기본 제공, 1500mAh 대용량 배터리, 블루투스 2.1, 3.5파이 이어잭 등 첨단 기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윈도우모바일폰 옴니아에 이어 안드로이드 탑재폰 ‘갤럭시 A’를 출시하여 국내 스마트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더불어 양질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바비 스페셜 에디션’ 노트북 출시



삼성전자는 10일 여성 고객을 겨냥한 노트북인 센스 X170 ‘바비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센스 X170 ‘바비 스페셜 에디션’은 코비 컬러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울트라씬 노트북 센스 X170모델을 ‘소녀들의 로망’인 바비인형을 모티브로 새롭게 디자인한 모델

이다.

‘바비 스페셜 에디션’은 디자인을 중요시하면서도 차별화된 제품을 원하는 여성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고광택의 바비 핑크와 바비 블랙 컬러 바탕에 바비를 모티브로 한 아이콘을 배치하여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또한 바비를 테마로 특별히 디자인된 다양한 종류의 화려한 바탕화면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센스 X170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 엄지손가락보다 얇은 25.4mm 두께이면서도 최대 9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긴 시간 야외 사용에도 무리가 없는 최강의 사용성과 이동성이 장점이다.

성능면에서도 고성능 코어2듀오 프로세서를 탑재해 멀티미디어 작업이나 멀티태스킹 사용 환경에서도 제약없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4GB로 업그레이드하고 하드디스크도 500GB를 탑재하여 드라마나 영화감상을 주로 하는 여성 고객의 편의를 배려했다.

센스 X170 ‘바비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컬러 파우치와 바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10만원 상당의 바비백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0일에서 13일까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삼성 모바일샵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약 고객에게는 기본 사은품 외 바비 에디션에 맞춘 큐빅 블랙 파우치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중순부터는 삼성 모바일샵에 바비 포토존을 마련하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응모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IT 솔루션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박용환 전무는 “노트PC를 하나의 패션 아이콘으로 활용하는 여성 고객을 위해 특별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밝혔다.

LG전자 한국인에 꼭 맞는 '옵티머스Q' 스마트폰 출시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한국형 스마트폰!”

LG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옵티머스Q(Optimus Q, 모델명: LG-LU2300)'를 통합LG텔레콤을 통해 이번 주말 출시한다.

옵티머스Q는 ▲최고 사양 ▲손쉬운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UI)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갖춰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한국형 스마트폰'이다. 고객층을 세분화해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하는 LG전자의 '세그먼트(Segment) 마케팅' 철학을 담았다.

LG전자는 옵티머스Q 출시와 함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제공하는 'LG앱스(APPs)'를 6월 초 전격 오픈한다.

'최선, 최상'을 뜻하는 라틴어 'Optimus'는 LG전자 스마트폰 제품군 이름이다. 또, 퀴티(QWERTY)자판을 통해 스마트폰에 최적화했고, 1,000여명의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한 스마트폰 생활연구 결과를 반영해 한국형 스마트폰의 자격을 갖췄다(Qualified)는 의미에서 'Q'를 더했다.

▣ 최고 사양으로 최상의 스마트폰 경험 제공

옵티머스Q는 빠른 처리속도와 인터넷 사용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1GHz의 처리속도를 지원하는 퀄컴(Qualcomm)사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를 장착해 최적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안드로이드OS 탑재 스마트폰 중 최대 용량인 3기가바이트(GB)의 사용자메모리를 내장해 1메가바이트(MB) 용량의 애플리케이션을 3,000여개까지 설치 가능하다. 여기에 동영상, 사진 등 멀티미디어 파일 저장 용도로 4GB의 외장 MicroSD 카드를 추가 제공한다.

또,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기능을 통해 옵티머스Q에 저장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TV, PC와 공유할 수 있다.

이밖에 ▲최적의 야외 시인성을 갖춘 3.5인치 WVGA급 'HD LCD' ▲DviX ▲3.5파이(φ) 이어폰잭 ▲500만화소 카메라 ▲돌비(Dolby)모바일 ▲지상파DMB ▲1,350밀리암페어(mAh) 대용량 배터리 등 고사양 기능을 지원한다.

▣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는 LG 스마트폰 전용 UI 첫 적용

LG전자는 스마트폰 초보자도 일반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UI를 지난 1년여간 자체 개발해 옵티머스Q에 첫 적용했다. 바탕화면에 구글 검색창은 물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 검색창도 배치했다.

특히, 옵티머스Q는 터치스크린뿐만 아니라 퀴티 키패드, 전면 하단의 트랙볼(Track Ball), 4방향 네비게이션 키 등 다양한 입력방식을 적용해 인터넷검색, 이메일, 트위터 등 각종 SNS 기능 활용에 유리하다.

또, 국내 최초로 연락처, 일정, 메일, 사진, 음악, 동영상 등 휴대폰 내 정보들을 PC나 웹서버와 무선 공유 및 편집 가능한 'LG 에어싱크(LG Air Sync)' 서비스를 내장했다.

▣ 한국인에 꼭 필요한 100여종의 애플리케이션 탑재

옵티머스Q는 실시간 주변 정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마트폰 최

초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스캔서치' 및 '다음(Daum) 로드뷰' 최신버전 등 100여종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Pre-load)했다.

또, 국어/영어/일어/중국어/한자사전은 물론, 네이버/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수학/물리/화학공식 편의사전 등 20여종의 사전은 모은 '지식사전'을 내장했다. 쿼티 키패드 내에 '지식사전' 핫키를 배치해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기업용 이메일 서비스인 '목시어(Moxier) 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 문서파일을 읽을 수 있는 '퀵오피스(QuickOffice) 뷰어' 등을 적용해 비즈니스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밖에 명함, 문서, 단어 등 문자를 카메라로 인식하는 '스마트리더', 현재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스크린캡처', 자신이 즐겨찾기한 사이트에 글이 등록되면 실시간으로 바탕화면에 전송되는 'RSS리더' 등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네이버/다음/싸이월드 등 포털서비스, 서울시 교통정보/윙버스 서울맛집 등 생활편의 애플리케이션도 다수 제공한다. 현재 게임 서비스가 막혀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제약을 감안, 국내 게임족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게임들을 모은 '추천게임 꾸러미'도 적용했다. '추천 App 꾸러미'를 통해 GS쇼핑, Mnet 및 지하철/버스 정보 앱들도 다운받을 수 있다.

■ LG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LG앱스' 오픈해 각종 앱 무료 제공

LG전자는 '옵티머스Q' 출시에 발맞춰 기존 콘텐츠 제공 사이트 '콘텐츠 큐브'를 전면 개편해 오는 6월 초 'LG 앱스(APPs)'를 오픈한다.

PC와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직접 LG앱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각종 콘텐츠를 무료 제공한다.

LG전자는 타 OS 기반 앱스토어나 PC 사용자들에게서 인기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엄선해 L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독점 제공한다. 옵티머스Q를 안드로이드 OS 1.6 버전에서 2.1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7~8월부터 LG전자가 직접 구매해 제품에 최적화시킨 60여종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LG앱스를 대폭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 스마트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해 안랩연구소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보안 솔루션인 'V3 모바일'도 LG앱스를 통해 제공한다.

LG전자 MC사업본부 한국사업부 조성하 부사장은, "옵티머스Q는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기술을 총 집약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이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LG전자는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꼭 맞는 '옵티머스' 스마트폰 시리즈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 美 드럼세탁기 시장 13분기 연속 1위



LG전자드럼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가전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다.

LG전자가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올해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매출액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 진출 4년 만인 07년 1분기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3년 넘게 1위를 수성하며 미국 내 드럼세탁기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티븐슨 컴퍼니(Stevenson Company) 조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24.0% 를 차지, 13.1%에 그친 월풀 (Whirlpool)과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렸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24.0%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드럼세탁기 4대 중 1대는 LG 제품인 셈이다.

또, 판매가 1,200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은 물론,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00~1,000 달러 시장에서도 1위를 확고히 했다.

그 동안 미국 시장에서 스팀 드럼세탁기, 알러지케어 드럼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 온 LG 전자는 올해에도 고객 인사이트 를 반영한 차별화 된 제품으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4월, 6모션 기능을 적용한 대용량 드럼세탁기를 내 놓고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 제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 된 제품 중 최대 용량이며, 효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또,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DD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10년 무상 보증제' 를 시행 중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제품 리더십과 현지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북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시어즈(Sears)' 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시어즈' 자체 브랜드인 '켄모어 (Kenmore)' 에 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 조성진 부사장은 "LG드럼세탁기가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은LG만의 핵심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이라며 "올해는 프리미엄 가전 대표 브랜드로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스테크놀로지, 통신장비 제조에서 핵심 무선 시스템 제조로 사업확장

무선통신장비 제조전문기업 (주)에이스테크놀로지와 지주회사 (주)에이스앤파트너스(이하 에이스)는 금일(5월 13일) 영국의 Aylesbury에 있는 Axis Network Technology Ltd.(이하 Axis)를 35백만 달러에 인수하여 (주)에이스테크놀로지가 55%, (주)에이스앤파트너스가 45%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Axis는 2005년 설립, 업계 선두로 WiMAX(모바일 와이브로)와 LTE(Long Term Evolution)로 대표되는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소형 기지국 장비인 RRH(Remote Radio Head/원격무선장비)개발을 시작하여 WiMAX 시장 글로벌 메이저 OEM기업들에게 제품 및 기술을 공급하며 그 높은 기술력과 특화된 노하우를 인정 받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에이스는 사업영역을 무선네트워크 장비에서 소형기지국 안테나와 통합 안테나 및 액티브 안테나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의 RRH시스템을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기존 에이스의 글로벌 LTE 서비스 메이저 업체들과 더불어 Axis의 WiMAX 글로벌 OEM 회사들의 영업망까지 확충하여 본격적인 4G시장에서 시스템 제공을 하는 글로벌 선도 통신장비 사업자로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ACE와 Axis의 만남을 통해 우수한 차세대 선진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벌써부터 메이저 기업의 관심이 높아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통해 4G 시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는 투자 총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선통신분야 시장조사업체인 ABI Research 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RRH 시장은 2010년 883백만 달러(9,800억 원)에서 2014년 1,895백만 달러(2조 1천억 원) 규모로, 연간 약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통신사들이 할당 받은 신규 주파수(KT : 900MHz / LGT 800MHz) 통신망을 LTE 방식으로 지목하는 등 통신 3사가 신규주파수 활용에 투자할 금액만 5년간 3조 7천억에 육박 할 전망이다.

또한 RRH 개발 이후 현재 전세계 서비스 공급자들도 자신들의 WCDMA(3~3.5세대) 기지국 네트워크를 RRH 방식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하였고 WiMAX, LTE로 대표되는 4세대 기지국 대부분에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3G이동통신 및 WIBRO인프라 투자 10조원 규모 추정)의 WCDMA 시장을 포함한다면 앞으로의 RRH 방식 기지국 보급률(시장수요)은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

에이스 구관영 회장은 "RRH는 고도의 S/W 기술수준을 요구하며,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WCDMA는 물론, 향후 차세대 기지국의 전형이 될 것이므로 RRH 기술보유 여부는 향후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Axis의 RRH 기술과 제품 플랫폼은 에이스의 글로벌 제조인프라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글로벌 무선통신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Axis의 최고경영자 Simon Mellor 또한 "이번 인수는 에이스와 Axis 두 회사에게 있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상호 Win-Win하는 전략적 인수이다라고 말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Axis의 RRH 기

술 및 전문성과 에이스의 최첨단 안테나 시스템과 RF모듈 부품들이 결합하여 4G LTE와 WiMAX 인프라 마켓에 있어 강력한 글로벌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xis의 Steve Cooper 사장은 "에이스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스는 우리의 OEM고객들의 수요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제조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앞으로 Axis는 미래혁신적이고 다양한 제품 군들을 단기간에 시장에 내놓는 등의 R&D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향후 Axis는 에이스애프터너스의 자회사로서 독립 운영체제로 제품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게 되며, 영업은 에이스테크놀로지에서 전담한다.

에이스애프터너스는 에이스테크놀로지의 제조역량, WTL의 안테나 하드웨어 기술력, Axis의 소프트웨어 설계역량의 협업 시너지를 통해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신제품 Variation을 리드해간다는 방침이다.

오토닉스, 위치 및 회전수 동시 출력 가능한 국내 최초 멀티턴 로터리 엔코더

Ø50mm 축형 멀티턴 애플루트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는, 23bit의 고분해능과 정밀도로 위치 데이터 및 회전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단회전 데이터, 다회전 카운트 개별 리셋 기능으로 기기 편성시 원점 맞춤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전 보상 기능을 지원해 백업 전원이 불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 1위 오토닉스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멀티턴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는 Parallel 출력 방식과 Serial 출력방식의 라인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고정밀 모터 제어와 산업용 로봇 등의 제어에 최적입니다.